



IBK기업은행, 미즈호은행과 국내외 협력 확대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미즈호은행과 국내외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부문 협력 ▲국외점포 성장 지원 ▲혁신 창업기업 육성 ▲IB(Investment Banking) 사업 공조 ▲기업지원 연구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키로 뜻을 모았다. /IBK기업은행



풀무원 ‘제15회 식품품질안전 컨퍼런스’ 성료

풀무원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캠퍼인재개발원 인재관에서 풀무원 자사공장 및 협력기업 품질관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식품품질안전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풀무원기술원은 협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해 변화하는 식품안전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풀무원



에어부산-클럽디 오아시스,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에어부산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스파&워터파크 클럽디 오아시스와 손잡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지난 19일 오후 에어부산 사옥에서 ㈜이도가 운영하는 클럽디 오아시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에어부산은 클럽디 오아시스는 에어부산 임직원 및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부산



효성중공업, 수력 발전기 국산화 공로 인정 받아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성중공업은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메가와트)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효성중공업



교보증권, 결식아동에 ‘드림이 따뜻한 밥상’ 지원

교보증권이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이해 ‘드림이 따뜻한 밥상’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드림이 따뜻한 밥상’은 2012년부터 국제구호NGO 기아대책과 함께 결식아동들에게 식량키트를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교보증권

‘85세 기부왕’ 유휘성 씨, 모교 고려대에 10억 기부

경영대학 인성기금 기부식
2011년부터 누적 94억 기부
장학·연구·연구상 등 활용

유휘성(상학58, 86세) 씨가 또다시 10억을 들고 모교 고려대를 방문했다. 그가 지난 13년간 고려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94억원에 달한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9일 본관 총장실에서 ‘경영대학 인성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대학 인성기금은 경영대학교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유휘성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함에 들어있는 ‘仁’자와 기부자 성함의 ‘星’자를 따 ‘인성(仁星)’이라 명명했다. 유휘성 씨가 그간 전달한 기부금은 인성장학기금, 인성연구기금, 인성연구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휘성 기부자(왼쪽)와 김동원 고려대 총장(오른쪽)이 기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2011년 모교인 고려대에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한 유휘성 씨는 2015년에도 고려대를 찾아 10억원 수표를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2017년에는 자녀들을 키운 추억이 어린 서초구의 155m² (약 50평, 당시 매매가 24억) 아파트를 기증,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0억원씩 기부했다. 이어 2022년 새해와 작년 5월 10억을 추가 기부하며 ‘85세 기부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기부식에서 유휘성 씨는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다는 말을 해 왔고 이러

한 기부 철학을 계속해서 지킬 생각”이라며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고려대에 교우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경영대학교원들이 연구를 통해 제자들에게 배움을 주고, 제자들은 열심히 공부해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13년간 모교에 끝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유휘성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이 잊지 않고 모교를 챙겨주셔서 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다”라며 “패적해 주신 경영대학 인성기금은 경영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배들이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SKT, 저궤도위성 활용 재난통신기술로 ‘장관상’ 수상

전파방송기술대상서 과기부 장관상
지상 인프라 손상에도 통신 제공

SK텔레콤은저궤도위성(LEO)과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재난 통신 기술 개발 공로로 제25회 전파방송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파방송기술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 통신 방송 분야 산업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상하는 상이다. SK텔레콤은 2022년 AI(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서비스 ‘플러스바’, 2023년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 상용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3년 연속 장관상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SK텔레콤의 재난 통신 기술은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지상 인프라가 손상됐을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기지국을 활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및 측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량형과 배낭형으로 구성된 솔루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춘 긴급 통신 이용이 가능하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도 연동되어 정부의 구조 작업 및 필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저궤도 위성 백홀(backhaul)의 용량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 위성 안테나 결합 기술, AI 기반 위성 시뮬레이터, 위성

정밀 측위 기술 등 다양한 선행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위성 통신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6G 시대에 대비해 지상 이동통신망과 위성통신을 결합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R&D 측면에서도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내년 초 예상되는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출시에 맞춰 SK텔레콤과 기술·사업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장은 “SK텔레콤의 기술력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오른쪽)이 전파방송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SKT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기아, 실시간 교통상황 제공

도로공사와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은 운전 중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20일 한국도로공사와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

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현대차·기아 고객은 향후 차량 인포테인먼트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구간, 정지차·역주행 발생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며 수집한 정보를 도로공사에 제공한다.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는 “앞으로도 주행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만성 △채권운용부문장(상무) 임동영 △패시브 운용부문장(이사대우) 최준영

◆대신증권 △서울WM부문장 남상구 △고객솔루션부문장 이선영

부음

▲박영준씨 별세, 박창성 (NH투자증권 실물자산투자본부 대표)씨 부친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30분. 02-3410-3151



이용국 목사와 박창욱 사모가 지난 11일 모교인 한신대에 1000만원을 기부한 뒤 강성영 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한신대, 이용국 목사 장학금 전달식

7년간 매년 1000만원씩 기부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지난 11일 경기캠퍼스 장곡관 총장실에서 이용국 목사(신학과 65학번)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용국 목사와 박창욱 사모는 모교인 한신대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일곱 번째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용국 목사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어가고, 교인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교단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강성영 총장은 “매년 학교를 찾아와 주시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는 아름다운 걸음에 감사하다.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에 신학생 전액 장학금 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신학교육에 장학금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좋은 목회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